

지리산 반달곰 잇단 출산 '3대 무럭무럭'

겨울에 새끼 11마리 태어나 번식 순조...총 56마리 서식 "정규 탐방로 이용" 당부



지난 2008년 방사된 반달가슴곰 암컷이 올해 초 낳은 새끼.

지난 2월21일 야생 반달가슴곰(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의 동면 상태 확인에 나선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은 한 바위굴 속에서 반가운 소리를 들었다. 지난 2007년 러시아에서 들여와 방사한 반달가슴곰(개체 번호 RF-21·12살)이 올해 초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 울음소리였다. 굴 깊숙히 숨어 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건강상태로 파악됐다. 이 어미 곰은 벌써 5번째 출산이었다.

지난달 9일에는 서울대공원 출신 어미 곰(KF-27·2008년 방사·12살) 포획과정에서 새끼 두마리가 함께 확인됐다. 새끼들은 공단 직원들이 어미 곰의 위치발신기 배터리를 교체하는 내내 도망가지 않고 어미 품을 파고 들었다.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들이 올해에만 새끼 11마리를 낳으며 전체 개체수가 50마리를 넘어섰다. 지난 2007년 첫 방사한 한 이래 처음이다. 환경부는 개체수 50마리 이상부터는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돼 순조롭게 자연 번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새끼 출산을 조사한 결과, 어미 8마리로부터 총 11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초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반달가슴곰 암컷 2마리가 새끼 2마리를 출산한 것을 '동면 포획' 과정 중에 확인했다. 동면 포획은 동면 중인 반달가슴곰을 찾아 발신기 배터리 교체, 건강상태 확인, 출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새끼도 함께



야생 출산 어미 곰·새끼 곰 현황

개체 번호	어미 곰			새끼 곰	
	도입처	연령	방사연도	새끼수	출산장소
RF-23	러시아	12	2007	2마리	바위굴
KF-27	서울대공원	12	2008	2마리	노지(행이)
KF-59	지리산	5	16년 야생	1마리(추정)	바위굴
RF-21	러시아	12	2007	"	바위굴
KF-52	지리산	7	14년 야생	"	나무굴
KF-47	지리산	5	"	"	노지(행이)

※R=러시아 태생·C=중국 태생·K=한국 태생·F=암컷·M=수컷

발견됐다.

또다른 암컷 4마리도 새끼를 각각 1마리씩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끼가 바위굴 등에 숨어 있어 울음소리 소리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들 어미 곰들이 지난해 6~8월께 각각 다른 수컷과 함께 활동했으며 이후 지리산 일대 바위굴 등에서 동면하던 중 올해 1월 말께 출산한 것

로 보고 있다. 어미 곰 중 3마리는 야생에서 태어난 2세대 개체로 밝혀져 자연에서 3년 연속 3세대 개체가 출생하게 됐다.

구례군에 자리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중(鍾)복원기술원 자연적응훈련장에서 관리 중인 어미 2마리도 지난 2월 말 새끼 3마리를 출산했다.

올봄 태어난 새끼 8마리를 합치면 지

리산 야생에는 현재 총 56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으며 종복원기술원에서 태어난 새끼가 오는 9월께 방사되면 59마리까지 늘어난다.

공단은 지난 2004년 토종 반달가슴곰과 유전자형이 같은 개체 5마리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서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했다. 2020년까지 '최소 존속개체군'(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 자연 번식이 가능한 최소 개체 수) 50마리를 복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울무와 탈진 등으로 일부 반달곰이 폐사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자연에 잘 적응하며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게 됐다.

송동주 종복원기술원장은 "반달가슴곰은 인척을 먼저 알아채고 피하는 습성이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은 단독 산행을 자제하고 정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며 "반달곰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해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구조된 어린 수달 모습.

지리산서 구조된 새끼 수달 2마리

"건강해져서 고향 돌아왔어요"

지난해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탈진한 채 구조된 어린 수달(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 2마리가 건강을 되찾고 자연으로 돌아갔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민물고기 연구소는 "지난 9일 수달 수컷 2마리를 지리산 부근 섬진강 상류 일대에 방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수달 2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구조된 1년 미만의 어린 개체로, 지역 주민들이 발견해 구례군에 자리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야생동물의료센터로 인계했다.

구조 당시 2마리 모두 주변에 어미가 안 보이고 탈진된 상태였으며, 생후 3개월 미만으로 추정됐다. 종복원기술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야생동물의료센터 훈련장에서 이들 2마리를 상대로 미꾸라지, 소형 어류 등 살아있는 먹이로 야생적응 훈련을 진행

했다. 족제비과 포유류인 수달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 동식물 목록인 적색목록에 준위협종(NT)로 분류됐다. 준위협종이란 가까운 장래에 야생에서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 종을 뜻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수달 방사지 주변에 무인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어린 수달이 자연에 적응하는 모습을 계속 관찰할 계획이다. 이번 방사가 지리산과 섬진강 일대 수달 생태계 건강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희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은 "이번에 방사한 수달 2마리가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식 보전 등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상수도 없는 마을 무료 수질검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전화 접수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을 위해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청은 광주·전남지역 100여 개의 음용지하수 관정을 선정해 대장균·중금속·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총 47개 항목에 대한 무료 수질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석결과와 관정 소유주에게 통보되며,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관정 개선, 마을공용관정 설치, 상수도 보급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는 지하수를 식수로 마시고 있는 주민은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지하수 관정이 충분히 깊지 않아 수질오염에 노출됐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안심지하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무료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은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 등 전국 화력발전소 굴뚝에 미세먼지(PM 2.5)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전국 33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측정장치는 전무(全無)하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33개 화력발전소(민간 액화천연가스·중유 발전소 제외) 굴뚝에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들 굴뚝에는 황산화물(SOx)과 질소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도 못해"

호남화력 등 전국 33곳 측정장치 설치 주장

산화물(NOx), 총부유먼지(TSP) 측정장치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굴뚝에서 측정되는 SOx과 NOx, TSP 배출량을 바탕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이들 33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만8318t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여주시 월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남화력(주연료 석탄)은 지난해 미세먼지 1178t을 배출했다. 같은 시기 여수발전본부(한국남동발전·여수

시 중흥동)에서는 213t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실측한 결과 여수발전본부에서는 1700μg/Sm이 측정됐다. 최근 강화된 환경기준(35μg/m)의 48.5배에 달하는 수치다. 호남화력은 올해 상반기에 측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정부는 내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50억원을 들여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